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제언들 - 마태복음 산상수훈(마 5-7장)을 중심으로 -

양재훈*

1. 들어가는 말

『개역개정』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번역을 위해 이 번역을 다듬을 때가 되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정비레가 아닌 가속도 곡선을 그리며 변화하고 있다. 보통 성경의 새로운 번역이나 개정 작업은 한 세대 3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세대 간격은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에 발맞추기 위해 좀 더 좁혀져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개역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필자는 몇 가지 개정을 위한 제언을 하려고 한다. 개정의 전반적인 원칙을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마 5-7장)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개정 작업의 원칙이나 구체적 번역 사례에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1. 마태복음 5:1-2

『개역개정』	제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다가온지라 , 이에 그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협성대학교 신약학 교수. jayhoonyang@oemail.ush.ac.kr.

1) 여기에서 προσῆλθαι 동사는 “나아오다”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동사를 (1) (찾아)오다 (2) 나아오다 (3) (가까이) 다가오다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개역개정』에서는 이 동사가 혼재되어 번역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오다’, ‘나아오다’ 등으로 달리 번역되었는지 모호하다. 따라서 전후 문맥에 따라 그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14의 경우(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앞으로 다가온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를 ‘찾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나아와”를 ‘(찾아)와서’로 바꾸어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마태복음 15:1도 유사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아온 것을 의미하므로 “예수께 나아와”라는 것보다는 ‘예수께(를) (찾아)와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예로서, 마태복음 4:3의 “나아와서”도 ‘(찾아)와서’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나아오다’라는 동사가 부름을 받고 나아가거나 나아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유교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높은 분이신 예수께로 지위가 낮은 제자나 사람들이 예를 갖추어 나아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처럼 그대로 ‘나아오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9:14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나 4:11에서 천사들이 찾아온 것을 ‘나아오다’로 지금처럼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마태복음 4:3과 15:1의 경우 예수를 대적하는 마귀나 사람이 오는 것이므로 ‘나아오다’라는 것보다는 ‘찾아오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한편, 마태복음 13:27; 14:12; 15:30; 16:1; 17:14 등은 이미 ‘오다’로 적절하게 번역한다.

둘째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게 좁혀진 움직임을 뜻할 때 ‘다가오다’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20(“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은 “와서”라고 번역하는데, 이 장면은 여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와서”를 ‘다가와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태복음 8:25(“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는 풍랑 중에 고생하는 제자들이 한쪽에서 잠에 빠진 예수께 다가와서 깨우며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나아와” 대신에 ‘다가와서’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3:36; 14:15; 15:12, 23; 17:7 등에서 “와서”, “나아와서”로 번역된 것도 ‘다가와서’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을 볼 때 더 적절하다. 마태복음 5:1의 ‘나아오다’도 유교적 관점에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예

를 갖추어 가까이 온다는 의미에서 보면 지금처럼 ‘나아오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배경 문맥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 온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온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공간적 거리가 좁혀지는 장면을 반영하여 ‘다가오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장면이나 상황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 해석을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지금처럼 남겨둘 수도 있고 새롭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5:1에 번역된 “나아온지라”를 ‘다가온지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의 그리스어 원문에는 가르치는 대상(αὐτοῖς)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번역에는 생략되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이를 살려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명시한다. 우리말에서는 대명사를 빠짐없이 쓰는 것이 때로는 글의 흐름을 깨뜨리거나 말을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우리말 글쓰기로 한다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그대로 ‘입을 열어 가르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행위의 대상인 “그들”을 살리는 것은 산상수훈 해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이냐는 문제는 산상수훈의 해석 역사에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문법적으로는 “그들”이 무리일 수도 있고, 예수의 앞으로 다가온 제자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결론부인 마태복음 7:28에서는 이 가르침을 들은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밝힘으로써 이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는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라고 하든지, 독자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입을 열어 무리를 가르쳐’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원문에 관한 번역자의 해석이 비교적 많이 개입된 것이지만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구절인 7:28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대명사로만 나와 있고, 입장에 따라 해석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의 번역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1.2. 마태복음 5:5

『개역개정』	제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몰려받을 것임이요.

κληρονομήσουσιν 동사가 『개역개정』에서는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번역의 첫째 문제는 한 단어로 된 그리스어 동사가 한국어 번역에서는 두 어절의 복합 형태(기업으로 + 받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기업”이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삼성, 현대 등 영리를 얻기 위해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사업 조직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인식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기업(企業)과 산상수훈의 기업(基業)은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한자어 병기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오해는 피할 수 없고, 한자어에 익숙하지도 않은 현대인이 두 단어를 분명히 구분해서 인식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현대인은 ‘기업’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 조직체인 전자의 단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인식한다. 따라서 한 단어로 된 원어를 두 단어로 된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와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인해 빚어지는 오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물려받는다’라는 단일 동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마태복음 5:6

구절	『개역개정』	제안
마 5:6	<u>의</u> 에 주리고 <u>목마른</u> 자는 복이 있나니	<u>의</u> 를 주리고 <u>목말라 하는</u> 자는 복이 있나니
눅 6:21	지금 <u>주린</u>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u>굶주린</u> 자는 복이 있나니

πεινῶντες τὴν διψῶντες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에서 “의”는 목적격 형태인데, 이로 인해 이 부분은 이중적 의미 즉, ‘의를’이라는 것과 ‘의 때문에’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전자로 해석하면,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추상적, 비유적 기능을 한다. 즉, 의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후자로 해석하면, 주리고 목마른 것은 물리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즉, 의라는 것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마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경우 추상적인 맥락으로 종종 말하고, 누가복음의 경우는 물리적인 맥락으로 종종 본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33에서 ‘의’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의’라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5:6과 6:33은 같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기에 이 두 구절은 의미가 더욱 서로 통한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의를 추구한다’라는 의미에서 ‘의를 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평행구절은 단어는 같지만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마태복음과는 다르다. 누가복음 평지설교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 물리적인 것을 강조한다. 누가복음 6:24-26의 저주 부분이 누가의 이런 해석 방향을 지지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눅 16:19-31) 중에서 누가복음 16:25가 누가복음 6:21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의를 주리고 목말라 하는’이라고 번역하고, 누가복음 평지설교 부분에서는 물리적인 배고픔의 상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주린”을 ‘굶주린’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물론 평행구절의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독자가 마태와 누가복음 각각의 특성과 지향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1.4. 마태복음 5:11-12

구절	『개역개정』	제안
5: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욕하고 [...]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 그들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에 관한 11절과 12절에서 『개역개정』은 박해의 주체를 생략하고 있다. 그리스어 원어는 주어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3인칭 복수 동사를 사용하여 그 박해 행위가 복수의 제삼자가 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글 번역의 경우 특히 12절의 번역에서는 박해의 주체가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문장이 다소 어색하고 도리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즉,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박해했다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박해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주어를 종종 생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맥은 불상의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박해의 주체를 ‘그들이’ 혹은 막연한 복수의 인물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로 번역하여 모호함을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 만일 ‘그들이’라는 주어를 넣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선지자들도”를 ‘선지자들을’이라고 하여 목적어임을 분명히 해주든지, “박해하였느니라”를 ‘박해받았느니라’로 하여 문장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박해하다’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하는 것은 원문을 너무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선지자들도”를 ‘선지자들을’로 바꾸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1.5. 마태복음 5:25

『개역개정』	제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 그 고발하는 자가 [...] 옥에 가들까 염려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여 그 고발하는 자가 [...] 옥에 가두는 일이 없게 하라 .

1) ‘사화하다’라는 용어는 현대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다. 따라서 ‘사화하다’를 ‘화해하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사화하다’라는 용어가 법률용어이므로 부적절하지는 않으나,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고, ‘화해’라는 말도 요즘에는 법률 용어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 μήποτε 단어는 ‘~하지 않도록’, ‘만일 ~하지 않으면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문맥은 적대자와 속히 화해하여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라는 맥락이다. 현재의 번역에는 “염려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에서 이 단어는 동사이며 이는 그리스어 원문에는 없는 품사이다.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키는데, 원문에는 무엇을 염려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의 의미를 반영하여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이라는 의미로 ‘가두는 일이 없게 하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1.6. 마태복음 5:28

『개역개정』	제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인을 탐할 속셈으로 여인을 보는 자마다

ὁ βλέπων γυναίκα πρὸς τὸ ἐπιθυμῆσαι αὐτήν은 πρὸς를 통해 의도를 강조한다. 즉,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을 향한 욕망이라는 의도성을 품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번역은 그 의도성이 다소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ἐπιθυμέω 동사가 단지 음욕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13:17에서는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5:28하반에서 이미 “간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ἐπιθυμέω 동사를 굳이 ‘음욕을 품다’라는 성적인 의미로만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음욕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탐하다’로 번역하여 여인을 ‘물질화’시키는 의미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그 의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이와 비슷한 의미로 πρὸς를 활용한 예가 마태복음 6:1이다) πρὸς의 의미를 살려 ‘속셈으로’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1.7. 마태복음 6:22

『개역개정』	제안
네 눈이 <u>성하면</u> 온몸이 밝을 것	네 눈이 <u>순전하면</u> 온몸이 밝을 것

한글로 “성하면”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ἀπλοῦς이다. 이 단어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한’, ‘단일한’, ‘너그러운’ 등의 윤리적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한’, ‘온전한’ 등과 같이 육체적인 개념이다. 기존의 번역은 ‘성하면’이라고 번역하여 육체적인 개념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실제로 후자보다는 전자의 의미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만일 이 단어를 “성하면”으로 번역하면, 22-23절 뒤에 나오는 24절에서 그 흐름이 끊어진다. 더구나 19-21절 맥락은 경제에 관한 내용이고, 24절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22-23절로 인해 글의 앞뒤 맥락이 단절된다. 그러나 이 단어를 ‘단순한’, ‘단일한’의 개념으로 보면 맥락이 연결된다. 단일함 즉, 여러 가지의 것이 혼재되지 않고 하나만 있는 상태를 의미하면,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닌, 둘 중 하나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전후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즉 22-23절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온몸이 밝게 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서 복잡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몸이 어둡게 됨을 말한다. 따라서 ἀπλοῦς를 ‘단순함’과 ‘온전한’의 의미를 동시에 담을 수 있도록 ‘순전함’(순수하고 온전한)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2.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몇 가지 사례를 골라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제언을 했다. 지면 관계상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으나, 일부의 사례를 통해 필자는 번역할 때 전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문맥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내는 번역을 해야 함을 말하고자 했다. 『개역개정』의 성격상 교회 공동체의 보편적 사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개역개정』을 개정할 때 그동안 성도들의 입에 익숙한 표현을 크게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 수용자의 정서적 차원도 무시할 수 없기에, 수정할 때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만일 적극적인 번역을 원한다면 새로운 독자층(Target Reader)을 설정하고, 그 독자층을 염두에 둔 번역 원칙을 세워서 새로운 번역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독자층을 고려한 이런 작업은 다양한 독자층이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작업은 『개역개정』을 개정하는 차원이므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정도로 작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7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5일)